

진리 내 맘 비춰 주니

Truth Reflects upon Our Senses (273)

생각 깊게 ♩ = 69-76

이중창

1. 진 리 내 맘 비춰 주 니 복 음 빛 나 타 나 네
 2. 온 유는 내 하 속 고 에 티 손 가 하 라 다 예 말 한 수 말 적 나 씬 이 타 하 셴 이 있 었 네
 3. 네 눈 속 에 는 티 가 있 다 다 말 한 수 말 적 나 씬 이 타 하 셴 이 있 었 네

성령 거스르느 자에 화가 있 을 지 어 다
 순결 일하 스기 원 는 하 자에 화 가 있 을 지 어 다
 만 일하 스기 원 는 하 자에 화 가 있 을 지 어 다
 고 라

비 판 받 지 않 으 려 먼 비 판 하 지 말 아 라
 주 의 모 든 계 명 즐 겨 순 종 미 하 여 야 하 리
 그 러 나 내 시 령 매 우 희 미 하 여 못 보 네

비 판 하 는 정 분 량 대 로 비 판 받 게 되 리 라
 이 웃 는 속 에 들 보 있 어 보 은 지 길 길 못 건 는 연 잘 세
 내 는 속 에 들 보 있 어 보 은 지 길 길 못 건 는 연 잘 세

화음
 복 된 주 여 우 리 들 을 인 도 하 여 주 소 서

기쁨 념 친 저 언 덕 에 천 사 기 다 립 니 다

4. 내 형제를 사랑하면
 내가 그의 티끌을
 닦아 내기 원하리라
 밝게 볼 수 있도록
 내 들보도 뽑아 내기
 심히 원하옵나니
 회개하는 내 눈물이
 뽑아 내어 주겠네

5. 자비 사랑 고쳐 주어
 밝게 보게 해 주네
 내 형제의 잘못 볼 때
 나도 온전치 않네
 예수님의 사랑만이
 나의 목적 되리니
 들보 앞에 작은 티끌
 거품 같은 것일세

작사(영어): Eliza R. Snow(1804~1887), 후렴 작사 M. E. Abbey
 작곡: Charles Davis Tillman(1861~1943)

마태복음 7:1~5
 엘마서 41:14~15